

## 보도자료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저출산대책담당관

저출산대책담당관	배 현 숙	6321-4360 010-8193-1301
다문화가족팀장	김 지 혜	6321-4364 010-3665-3941
담 당 자	김 경 정	6321-4366 010-2985-5556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14매

### 서울시, '7만 다문화가족' 종합지원한다

- 서울 다문화가족에 대한 종합지원계획 「다(多)행복 서울플랜」 발표
- 7대 핵심과제, 34개 세부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고 자립 발판 마련
-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지원기관' 통해 교육, 취업, 사후관리 원스톱 서비스
- 바리스타·네일아티스트 '다(多)행복카페', 사회적 프랜차이즈기업으로 발전
- 영등포·구로 등에 '다(多)행복 부모커뮤니티', 5~10세 1천명 방문학습지 지원
- '다(多)행복 상담센터'에선 친정 먼 결혼이민자 긴급보호, 상담 등 인권보호
- 태교동화에 이어 출산 후 육아정보 10개 국어로 담은 생활밀착형 동화집 발간
- 5월 서울광장서 '다문화엑스포' 열어 다함께 어울리는 가운데 인식 개선
- 다문화가족봉사단, 시 모니터링단 활성화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 기회 강화
- 시, "결혼이민자와 다문화자녀 모두 다(多)행복할 때까지 체계적 지원"

국제결혼의 증가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약 5만 명(전국의 약 22%)의 결혼이민여성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다(多)행복 서울플랜」을 발표, 다문화가족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문화가정이 지역의 주체이자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多)행복 서울플랜'엔 다문화가족 모두 다(多)행복한 서울을 만든다는 뜻을 담았다.

이번 계획은 국제결혼 등의 증가로 최근 6년 새 결혼이민자는 37%, 다문화자녀는 416%나 증가했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하고 시민들의 부정적인 사회 인식도 높아져 가고 있는데 따라 마련됐다.

○ 결혼이민여성의 80% 이상이 언어, 경제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용형태를 봐도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54%에 이른다. 성폭력·가정폭력도 07년에 비해 10년 290% 증가했지만 인권 보호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한 다문화가족도 43%에 이른다.

「다(多)행복 서울플랜」은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자녀 교육지원 ▲건강한 다문화가족관계 강화 ▲건전한 다문화사회조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한 7대 핵심과제, 34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 지원대책은 다문화가족을 단순히 수혜적인 정책지원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7대 핵심과제는 ①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지원 강화 ②다문화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 맞춤형 교육지원 ③위기 다문화

가족 예방 및 인권보호 지원 ④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강화 ⑤ 생활밀착형 정보제공 강화 ⑥사회인식 개선 ⑦다문화가족 지원 추진 체계의 정비다.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지원기관 운영에 교육, 취업, 사후관리 원스톱 서비스>**

□ 결혼이민자의 정착 및 자립 강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중점지원기관’을 내년부터 운영한다. 여기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의 취업과 관련한 교육, 취업연계는 물론 취업 후 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서울시 거주 결혼이민여성은 '07년 35,897명에서 '12년 48,59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의 80% 이상이 언어, 경제문제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미취업 결혼이민여성의 82%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 이들의 취·창업 관련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뿐만 아니라 기관에선 언어나 자녀 문제로 교육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위해 통·번역 서비스와 아이돌보미도 지원한다.

□ 시는 다문화가정 밀집 지역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를 대상으로 우선 검토해 ‘취·창업 중점지원기관’으로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

**<바리스타네일아티스트 '다(多)행복카페', 사회적 프랜차이즈기업으로 발전>**

□ 결혼이민여성이 바리스타·네일아티스트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 카페인 ‘다(多)행복카페’도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 서울시는 유휴공간을 활용, 장소를 제공하고 민간기업과 연계해 추진하는데, 시는 내년 운영 성과가 좋을 경우 향후 사회적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다(多)행복카페’는 결혼이민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은 결혼이민여성과의 친밀감을 높이며 네일아트와 커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사회통합형 카페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시는 이 밖에도 통장 개설 등 은행 업무 처리나 운전면허 필기시험 교육 등을 맡게 될 ‘찾아가는 다(多)행복교실’ 운영, 우수 다문화 자조모임에 대한 장소·활동비 지원, 시립대 결혼이민여성·자녀 대상 특별전형을 통한 학위취득 기회 제공, 비전임계약직 등을 활용한 공직 채용기회 확대, 한국어 말하기·글짓기 대회 실시 등의 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영등포구로 등에 '다(多)행복 부모커뮤니티', 5~10세 1천명 방문학습지 지원>**

□ 다문화자녀 교육을 지원할 ‘다(多)행복 부모커뮤니티’도 영등포구, 구로구 등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학교별, 학년별로 시범 추진된다.

□ ‘다(多)행복 부모커뮤니티’는 같은 학교, 학년, 거주 지역 단위의 일반 학부모와 결혼이민여성 학부모로 구성된 소규모 커뮤니티로서, 일반 학부모와 달리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알림장·가정통신문을 보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여성 학부모를 돕게 된다.

□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문 방문학습지와외의 업무협약을 추진해 만 5세~10세의 저소득층 다문화자녀 1천 명의 한글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방문학습지’도 지원한다.

○ 방문학습지 기관에선 주1회 방문교사를 파견, 취학 전 자녀에게는 한글교육을, 저학년 자녀에게는 국어·수학 등 기초과목을 중심으로 교재를 제공하고 1:1 개인지도를 해주게 된다.

□ 이 밖에도 취학 자녀에게 부모 출신국 유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숙제/독서 등을 도와주는 학습도우미를 운영하고, 심리·정서적 지원 및 치료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청소년 수련관을 활용, 일반자녀와 다문화 자녀가 함께 문화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찾아가는 지구촌 체험교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다(多)행복 상담센터에선 친정 먼 결혼이민자 긴급보호, 상담 등 인권보호>**

□ 가정폭력 등 위기에 놓인 다문화가족의 개인상담은 물론 남편, 시부모 등을 포함한 가족상담, 병원 등 전문기관 연계 등을 맡게 될 전문종합상담센터인 ‘다(多)행복 상담센터’도 서울시내에 설치·운영된다.

□ 센터는 친정이 멀고 단기간 머물 장소가 없는 결혼이민여성 중 피해 여성 및 동반 아동에겐 단기간 일시보호가 가능한 긴급대피처도 제공하는 한편, 결혼이민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해 언어 및 법률지원, 이동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결혼이민자 고충 상담	결혼이민자의 가족 관계 및 사회 생활 관련 고충 및 우울증 등의 심리 상담 (방문, 전화, 온라인 상담)
남편 및 자녀, 시부모 상담	남편 및 자녀, 시부모 등 가족 구성원 대상 상담
전문기관 연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 신경정신과 및 병원 등에 연계
결혼이민자 일시 보호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일시 보호·긴급대피처 제공

**<태교동화에 이어 출산후 육아정보 10개 국어로 담은 생활밀착형 동화집 발간>**

□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에 도움을 줄 생활밀착형 정보제공도 강화된다.

□ 대표적으로, 시는 실생활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정보를 다국어의 동화집 시리즈로 발간한다. ‘11년 처음 발행해 높은 인기를 보인 태교동화집 ‘엄마의 속삭임’ 1편에 이어, 이번에는 출산 이후 필요한 육아 정보를 다국어로 담은 ‘엄마의 속삭임 2편’을 10개국어로 2만 부 발간할 예정이다.

○ 태교동화집 「엄마의 속삭임」은 전래동화와 태교정보를 함께 수록했고, 한국어낭독 CD까지 제공해 다문화가족의 추가발행 요청이 있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보인 바 있다.

□ 시는 이외에도 서울생활 및 다문화가정 지원정보 등을 수록한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종합 정보물을 제작하는 한편, 서울시 다문화가족 종합 포털사이트인 ‘한울타리 홈페이지’에 보다 다양한 콘텐츠 제공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홍보·이벤트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 <5월 서울광장서 '다문화엑스포' 열어 다함께 어울리는 가운데 인식 개선>

- 다문화가족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다문화엑스포'도 개최한다. 내년 5월 중 서울광장에서 열릴 '다문화엑스포'는 일반시민과 다문화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서, 공모전·영상물·부스·발표회·부대 행사 등 다양한 체험의 장을 통해 인식 개선을 제고할 계획이다.
  - 이 외에도 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다문화'를 대신할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고,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지원 사업을 기존 4개에서 내년에 8개까지 두 배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 <다문화가족봉사단 시 모니터링단 활성화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 기회 강화>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나 결혼이민여성이 지역사회의 주체, 정책 참여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루트도 보다 내실 있게, 다양하게 정비한다.
- 서울시는 다문화가족 봉사단인 '다(多)행복 봉사단'을 120가구 500여명으로 구성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마련하고, 중국, 몽골, 필리핀 등 다양한 출신국 결혼이민여성으로 구성된 서울시 모니터링단인 '무지개포럼단'의 정책 의견을 수렴해 결혼이민여성의 실제 욕구를 정책개발에 반영할 계획이다.
- 또한 지난 7월에 위촉된 서울시 외국인 명예부시장(막사르자의 온드라흐)을 중심으로 하는 결혼이민여성 출신국 자조모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결혼이민여성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사회주체로서 정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이 외에도 결혼이민여성-주부, 다문화자녀-대학생 자원봉사자의 1:1 결연을 통한 일촌맺기 멘토링사업, 사회복지학과 등 관련 학과 대학생 대상으로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 공모,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여성 모국 방문을 통해 상호 문화이해를 돕는 외갓집방문 등도 실시한다.
-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다문화가족은 이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결혼이민자와 다문화자녀 모두 다(多) 행복한 서울이 될 때까지 다문화가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계적·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다문화가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多]행복 서울 플랜” 요약

## I 현황 및 문제점

### ■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한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자녀 수 지속 증가

- 서울시 거주 결혼이민여성 : 48,597명 (전국의 22%, 2위)
  - 60%이상 수도권 거주 : 경기 27.8%(1위, 61,280명), 인천 5.9%(13,052명) 등
- 다문화가족 지속 증가: 결혼이민자 35.4% ↑, 다문화 자녀 417% ↑(최근 6년 대비)

### ■ 다문화가정 실태 및 문제점

- **결혼이민여성** :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실제적 지원 부족
  - 결혼이민여성 80%이상 언어, 경제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 겪음
  - 취·창업 관련 종합지원 전담기구 부재 : **교육 후 취업률 7%**

·근로 현황 : **임시 및 일용근로자 54%**, 상용근로자 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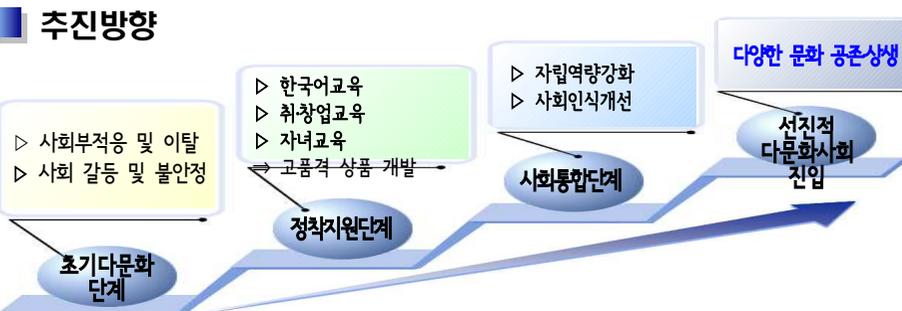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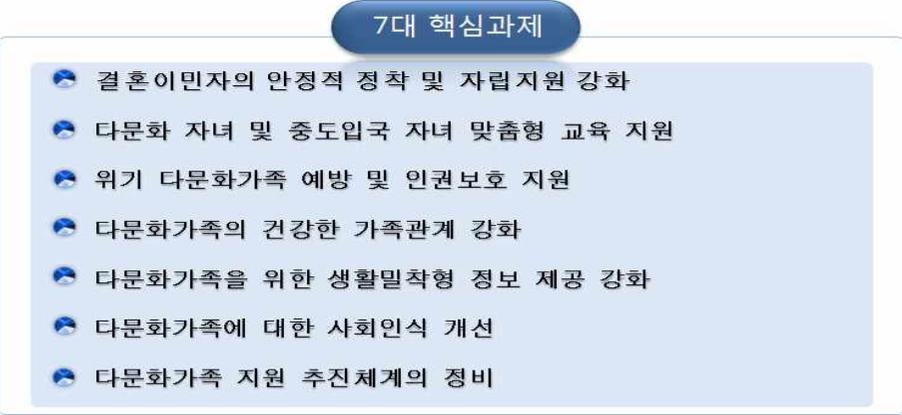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혼·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인권보호 미흡**
  - 이혼: '08년 1만2430건 → '10년 1만4319건 (15.2% ↑, 전체 대비 123% 비중)
  - 성폭력·가정폭력 : '07년 1,793건 → '10년 6,985건 (289.6% ↑)

- **다문화 자녀** : 정착 및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 교육 사각지대 노출
  - 유아기 대비 학령기 자녀에 대한 학습 지원 부족
  - 교육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중도입국자녀 대상 체계적 지원 미흡

·자녀 재학률 : 일반 다문화 자녀 59.3%, 중도입국 자녀 21.7%

-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 증가**
  - 다문화가족의 일상생활 차별 경험 : 42.7%
  - 수혜적·시혜적 정책지원 대상 인식 :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서 포용 부족

## II 비전 및 추진방향



### III

## 분야별 세부 추진사업(34개)

【 핵심 과제 】	【 세부 추진사업 】
결혼이민여성 정착 및 자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찾아가는 다(多) 행복교실” 운영</li> <li>◆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li> <li>◆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중점기관 운영</li> <li>◆ 사회적기업 “다(多)행복 카페” 운영</li> <li>◆ 결혼이민여성 학위취득 지원 (외 3)</li> </ul>
건강한 다문화자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학 자녀 학습도우미 운영</li> <li>◆ 다(多)행복 부모커뮤니티 추진</li> <li>◆ 방문학습지 지원 (외 2)</li> </ul>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도입국 자녀 모집·발굴</li> <li>◆ 한국어 교육</li> <li>◆ 심리·정서 지원</li> <li>◆ 가족관계 향상 지원 (외 3)</li> </ul>
위기다문화가정 예방 및 인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多)행복 상담센터” 설치·운영</li> <li>◆ 가족폭력 예방프로그램 실시 강화</li> </ul>
건강한 가족관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공모</li> <li>◆ “다(多)행복 봉사단” 구성·운영</li> <li>◆ 일촌맺기 멘토링 사업 활성화</li> <li>◆ 다문화가족 외갓집 방문</li> </ul>
생활밀착형 정보제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별 동화집 시리즈 발간</li> <li>◆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종합정보물 제작</li> <li>◆ 한울타리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li> </ul>
사회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다문화가족 명칭 공모</li> <li>◆ 서울 인식개선 엑스포 개최</li> <li>◆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지원사업 확대</li> </ul>
다문화가족지원 추진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단(무지개포럼단) 활성화</li> <li>◆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내실화</li> </ul>

## 1 결혼이민자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7개 사업)

- 체험활동, 자조모임 활성화, 한국어능력 강화 등을 통한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
- 취·창업 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 “찾아가는 다(多)행복교실” 운영 (은행,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서울시경찰청 연계)
  - 금융, 재테크, 운전면허, 범죄예방, 법률 등 체험형 패키지 교육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장소 및 활동비 월 5만원 지원, '14년 100개)
- 취·창업 중점지원기관 지정·운영 ('13년 1개소)
  - 직업탐색, 교육, 상담, 취업연계, 직장적응훈련 등 윈스톱 종합서비스
  -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 확대 추진
  - 단기적으로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의 공공근로 확대 추진 (우선선발 가점, 특별사업 추진)
- 사회적 기업 프렌차이즈 “다(多)행복카페” 운영 지원 ('13년 1개소 → '14년 5개소)
  - 커피, 네일아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페 운영, 실습기회 부여 및 일자리창출
  - 산하기관 등 시 유휴공간 활용 장소 확보
- 대학 특별전형을 통한 학위취득 지원 ('14년 서울시립대)
  - 결혼이민여성·자녀대상 특별전형, (대여)장학금 또는 학비일부면제 등 추진
- 결혼이민여성 공직채용 기회 확대
  - 다문화가족, 외국인, 관광사업 등 결혼이민여성 적정 부서 비전임계약직 확대
  - 공무원채용을 위한 지방공무원임용령 51조의 4 개정 건의 (사회적 약자 배려 전형)
- 기타 중기 결혼이민자 대상 방문교육 확대, 한국어 능력강화 지원 확대 등

## 2 다문화자녀 맞춤형 교육 지원 (5개 사업)

- 학년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통한 **기초학력 지원 강화**
- 심리·정서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안정적 심리·정서 지원**

- 방과 후 학습지원을 위한 “**학습도우미**” 운영 (자녀동선센터(43개소) 등 연계)
  - 초등학교 다문화자녀의 독서·숙제 지도 등 실시 (부모 출신국 유학생 적극 활용)
- 일반·다문화가정 학부모 연계 “**다(多)행복 부모커뮤니티**” 추진
  - 같은 학교, 거주 지역 단위 소규모 커뮤니티 운영 (자녀교육 정보 지원)
- 한글 및 기초과목 방문학습지 지원 (만5~10세 저소득층 자녀 1000명)
- 윈스톱 심리·정서 프로그램 제공 (청년상담센터(2개소), 은평원 아이존사회복지시설(6개소) 등 연계)
  - 대상자 선정(초기 상담, 사전검사) → 개인·집단 상담, 치료프로그램 → 사후 관리
-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지구촌 체험교실**” 운영 (청년수련관(31개소) 등)

### 3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교육지원 (7개 사업)

- 정부·민간단체 등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 『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를 통한 **중점적 지원프로그램 제공**

- **중도입국 자녀 모집 발굴**
  - 종합적 정보제공을 위한 Welcome Kit 제작(명함형 등 5종, 7만여부)
  - 참여유도 및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통비 지원(월 30,000원/1인, 총100명)
- **학교진입 및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
  - 한국어교육(한국어 능력시험 대비반), 교재 개발, 한국문화 교육과정 등 집중 운영
- **개인 심리·정서 지원** (청소년상담센터(20개소), 은평병원 이이존사회복지시설(6개소) 등 연계)
  - 개별·집단상담 및 음악·미술 등 치료프로그램, 통·번역서비스 및 이중언어 상담사 활용
- **가족관계 향상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은평병원(다문화정신건강클리닉) 등 연계)
  - 가족상담 프로그램의 주기적 실시 및 전문 가족상담기관 연계
- **교육청 연계 학력인증 교육과정 운영** (중·고 통합과정 위탁형대안학교 및 고입검정고사반)
- **진로·취업 지원**
  - 청소년 커리어코칭 전문상담, 맞춤형 자격증 강좌 개설·운영
- **사회통합 지원**
  - 청소년 수련관 활용 등 “찾아가는 방과후 및 주말 프로그램” 운영
  - 역사문화체험, 부모 자조모임 지원, 멘토링 구성, 워크숍 또는 포럼 개최 등

### 4 위기 다문화가족 예방 및 인권보호 (2개 사업)

- 부부, 자녀, 가족갈등 등 해소를 위한 **종합적·전문적 상담 거점 확보**
- 가정 내 폭력근절을 위한 **사전예방교육 강화**

- **“다(多)행복 상담센터” 설치·운영**
  - 긴급보호, 개인·가족상담, 피해사례관리 등 원스톱서비스 지원
  - 가해자 교정·치료,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 실시 강화** (교육청, 경찰청 등 연계)
  - 결혼이민자, 배우자 등 가족단위 대상 체험형 예방교육

### 5 건강한 가족관계 강화 (4개 사업)

- 민·관·학 연계를 통한 **가족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및 상호 가족문화 이해 제고**
- 다문화‘가족’ 중심의 봉사활동 참여를 통한 **자긍심 고취 및 인식개선 제고**

-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공모** (관련 학과 대학생 대상)
- **“다(多)행복 가족봉사단” 구성** (120가구 500여명)
  - 자발적 참여형 다문화가족 자원봉사단체 구성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유도
- **“일촌맺기 멘토링 사업” 활성화** (친정엄마-언니 맺기, 언나오빠/누나형맺기)
  -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자녀 등 1:1 결연, 동아리 및 문화체험 등 지원
- **다문화가족 외갓집 방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대상 100가구, 400명)

### 6 생활밀착형 정보제공 강화 (3개 사업)

-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 및 조기정착 지원**
-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정보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정보접근성 향상**

- **생애주기별 동화집 시리즈 발간** (10개 국어, 20,000부)
  - 정서적 교류, 생애주기별 기본정보(태교, 육아 등), 한국어 낭독CD 제공 (11년 태교동화집 발간)
-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종합정보물 제작** (10개 국어, 30,000부)
  - 생활정보(교통, 관공서, 의료 등), 정책 및 서비스 안내, 모범수기 등 수록
- **서울시 한올타리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 다국어 확대구축(5~8개국), e-book 제공, 온라인 커뮤니티, 웹진발행 등 콘텐츠 및 홍보 강화

### 7 다문화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3개 사업)

- 민간 연계 및 다문화가족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확대**
- 시민참여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차별해소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 **새로운 다문화가족 명칭 공모** (시민 및 직원 대상 온오프라인 공모 홍보)
- **“서울 000(선정명칭 사용) 엑스포” 개최** (5월 중/서울광장)
  - 공모전, 종합발표회, 부대행사, 학술포럼 등 범시민 대상 인식개선 체험의 장 마련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지원 사업 확대** (민간 활용, 기존 4개→13년 8개)

## 8 다문화가족 지원 추진체계의 정비 (2개 사업)

- 다문화가족의 정책참여를 통한 [사회주체로 성장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 전달체계의 내실화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 **서울시 모니터링단(무지개포럼단) 활성화** (정책의견 수렴 및 포럼·워크숍 등)
  - 출신국가·직종·정착기간별 다양한 구성(현재 6개국 31명), 정기모임·간담회 등 실시(연5회)
  - 이주여성출신국 자조모임 네트워크 구축, 다문화가족단체협의회 구성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글로벌센터(1개소)·글로벌빌리지(7개소) 등 유사기관 간의 중복 최소화 및 연계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제고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업서 제작(장보제공, 개인정보수집 등)